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2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음력 9월 22일 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 이재명 후보 청와대 회동

文 "중요한 것은 정책" 李 "문정부 성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야권 대선후보와 면담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일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와 상춘재에서 50분간 차담을 갖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겪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기업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 생존을 넘어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지만 그 밑에 기업들, 그 아래 작은 기업, 대기업 아닌 기업은 힘들다"며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통령님을 일대일로 뵙기가 쉽지 않은데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주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지사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고 말하며 '원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어제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었다"며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산업재편을 국회의 대대적인 개입, 투자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 대선후보 간 면담 가능성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면담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후보가 선출되고, 후보가 요청하면 검토할 생각이다. 지금은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진실' 끝내 입 다물고 … 노태우 사망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사진)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2, 6면〉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10일 올림픽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새병원 학동 현 부지에 짓는다

분야별 병동 순차적 건립
병원 이전 논란에 종지부

전남대병원이 광주시 동구 학동 현 병원 부지에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을 갖춘 새병원을 건립한다. 그동안 현 부지 잔류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는 방안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셌지만 최근 전남대병원은 현 부지 내 새병원 건립을 위해 정부에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 등을 제안하면서 병원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대형 건물을 한꺼번에 건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뇌혈관집중 의료센터, 호흡기·감염병전문통합관리센터 등 분야별 병동을 순차적으로 짓는 방식으로 새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첨단 의료 장비 등도 대폭 늘려 광주·전남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도 한 층 나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학동 병원 1동 별관과 7동에 447억여원(국비 111억여원·자비 336억여원)을 들여 '전남대병원 전문진료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국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 예결위 심의 등을 통해 신규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예산 반영을 통해 우선, 1동 별관에 심뇌재활치료실, 심혈관계중환자실, 심뇌혈관중재술실 등을 갖춘 심뇌혈관집중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심뇌혈관계 질환의 통합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8동의 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와 인접·연계해 신속 진료 시스템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또 7동에는 감염병치료격리병동, 혈액투석실, 호흡기질환 병동부, 특수 검사실 등을 갖춘 호흡기·감염병전문통합관리센터를 짓게 된다. 이 센터는 감염병 대응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 19 등 국가 전염병 발생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현 병원 및 인근 의대 부지에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며, 대형 건물을 한꺼번에 짓는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우선 시급한 분야의 병동을 먼저 짓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첨단 의료장비도 대폭 보강한다. 전남대 병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등 11종을 226억여원(국비 56억여원·자비 170억여원)을 들여 구입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3동 진료공간 재배치 사업도 추진된다. 전남대병원은 96억여원(국비 24억원·자비 72억원)을 투입, 준공 후 38년이 지난 3동의 분산 배치된 외래·검사실 등을 통합해 심층적 치료 시스템을 만들고, 감염·전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도 확충한다.

한편 전남대병원 본원은 1910년 전남·광주 자혜의원으로 문을 열었다. 1925년 전남도립 광주의원을 거쳐 1952년 국립전남대 의과대 부속병원, 1988년 전남대병원으로 개칭됐다. 1982년 본원 건물 건립 이후 시설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져 2008년·2018년 이전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까지 했지만 무산됐다. 현재 3만8200㎡ 부지에 13개 건물, 1085병상을 갖추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